

5주차

조선 왕의 하루 일과

소진형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조선 왕의 권한과 그 범위

- 도입
- 중화 질서 안에서 조선 왕의 규정과 권한
- 외부적 평화와 국내 정치의 안정의 관계

02. 유교적 통치자로서 왕의 권한

- 국내 정치에 있어서 왕의 권력과 그 범위
- 권위의 표현으로서 제사, 묘호,
그리고 그 의미

03. 왕의 일과(1): 문안

- 왕의 하루
- 문안

04. 왕의 일과(2): 경연

- 경연의 의미와 형식
- 실제 경연의 사례

05. 왕의 일과(3): 조회와 인사

- 왕의 공무처리
- 왕의 행정처리와 명령의 전달, 관료의 임용

4차시

왕의 일과(2): 경연

학습목차

학습목표

- 경연의 형식, 내용, 실제 운용방식을 검토하고 조선 왕의 고된 업무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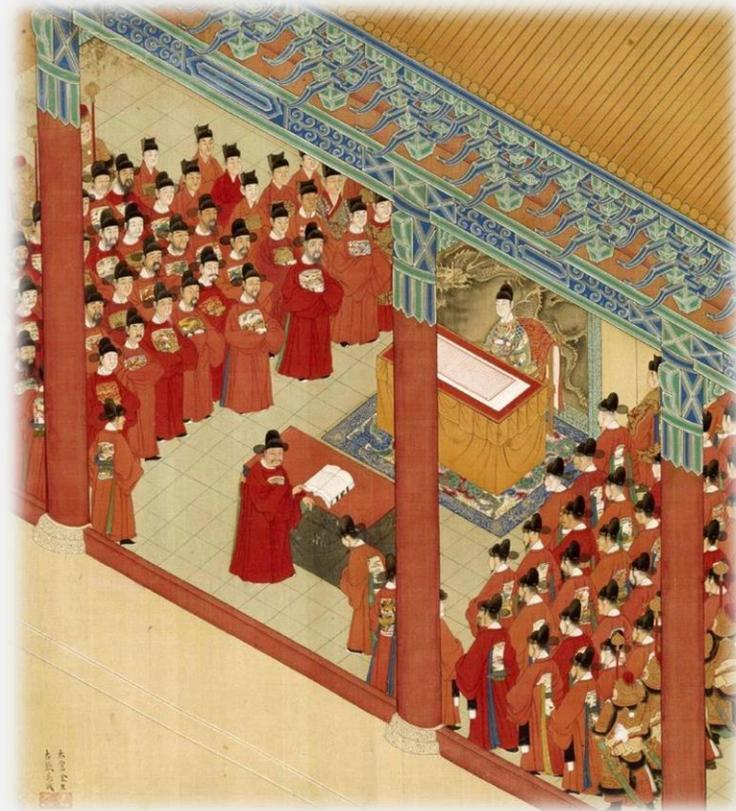
학습내용

- 경연의 의미와 형식
- 실제 경연의 사례

경연의 의미와 형식

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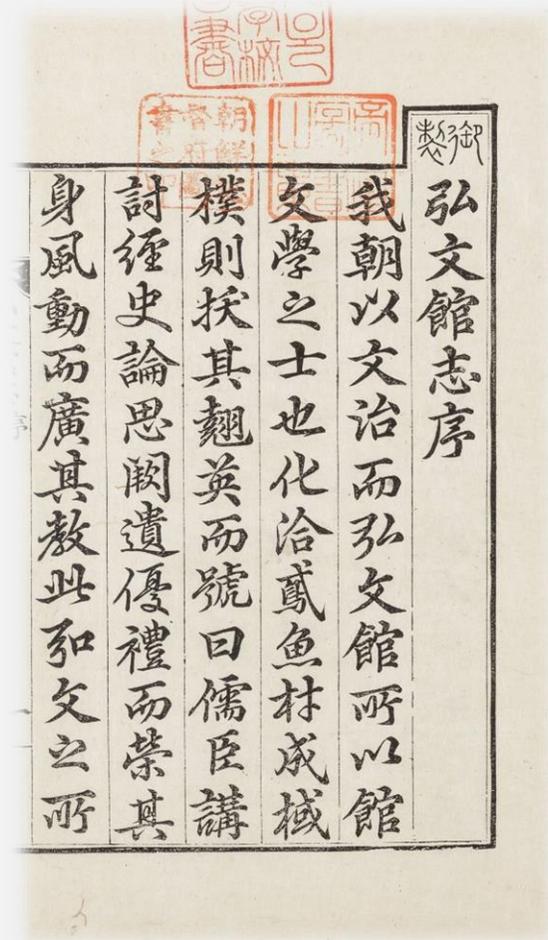
- 군주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자리
- 조선의 왕들은 경연을 폐지할 수 없었음
→ 경연을 하지 않으면 유교 국가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



명나라 신종의 경연장면

경연의 의미

- 경연은 국왕의 공부, 서연은 세자의 공부를 지칭
- <홍문관지>에 규정된 공부시간
 - 조강: 해 뜰 무렵
 - 주강: 정오
 - 석강: 오후 2시



가장 많이 경연을 한 왕은?

- 제일 많이 한 왕: 세종, 영조
 - 세종: 연평균 100회 이상
 - 영조: 연평균 67회 정도



영조 어진

경연의 형식

- 경연관이 왕의 공부를 도움
- 공부할 책을 정하고 내용을 해설하는 등 왕의 학문지도를 맡음.
- <승정원일기>에 경연에서 왕이 무엇을 배우고 토론했는지 자세히 나옴.
 - 왕이 경연을 하겠다고 하면 승정원에서 이 결정을 알리고, 경연에 참여하는 관청서리들이 소속 관청에 연락

실제 경연의 사례

경연의 과정

1. 경연 날짜와 강독 교재가 정해지면, 어람용 책에 홍문관 관원이 강의할 범위를 적고 어람용 책에 붉은 글씨로 토를 달아 궁궐로 보냄
2. 경연 전에 습강, 즉 예행연습이 있음
3. 정해진 시간이 되면 경연 장소에 왕이 가서 참석자들과 강독. 강독 후 왕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함

경연의 교재

- 사서삼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주역)》
- 역사서: 《춘추》, 《사기》, 《고려사》
- 성리학 해설서: 《대학연의》, 《근사록》, 《심경》, 《성리대전》
- 통치, 정치 관련: 《송감》, 《통감강목》, 《정관정요》, 《국조보감》 등

경연 사례 - 영조

- 영조의 질문
 - 임금의 여섯 가지 폐해에 대해 공부하면서 신하들에게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물음
 - 임금의 여섯 가지 폐해란 당나라 학자 육지가 덕종에게 말한 것

경연 사례 - 영조

- 신하의 답변
 - 남을 이기기 좋아하고 비판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총명함을 자랑하고 위엄으로
사람들을 겁을 주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함
- 신하들은 영조의 단점을 가감없이 말함

경연 사례 - 영조

- “나는 아는 것이 적고 배운 것이 많지 않으며 뜻은 크나 재주가 적어 말을 하고 일을 하는 사이에 과연 허다한 병통이 있다. 대저 세도를 개탄하는 마음은 지나치고 사람을 용납하는 도량은 작으니,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병통이 있게 된 것이요, 일에 실수가 있으면 문득 깨닫고 마음 속으로 후회하니 허물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병통이 있는 것이며,

경연 사례 - 영조

-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빠르다는 것은 학문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총명을 자랑함은 아는 것은 적은 데 뜻만 크기 때문이다. 또 위엄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위엄을 부리는 것은 위엄을 사납게 부리는 데 가까운 것이다. 오직 함부로 행동하는 것 한 가지는 나에게 실제 없다.”

《영조실록》 영조 9년 12월 11일

경연 사례 - 영조

- 이 사례는 군주와 신하가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내용이 아님
- 당시 영조는 한 관료를 귀양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임금의 여섯 가지 폐해에 빗대어 신하들이 영조를 비난한 것

경연 사례 - 영조

- 경연의 자리는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쟁하는 장

마무리

- 유교 국가 조선의 왕
 - 경연에 참여해야 함
- 정조: 경연을 ‘초계문신제’로 바꿈

[출처01]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97%B0#/media/%ED%8C%8C%EC%9D%BC: Xu_Xianqing_part17.jpg

[출처0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663

[출처03]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listAllow=N&ccimId=6323030&ccbaKdcd=12&ccbaAsno=09320000&ccbaCtcd=11&noArray=12_09320000_11%2C12_09320000_11%2C12_09320000_11%2C12_15310000_11%2C12_16310100_31%2C12_16310200_31%2C12_16310300_31%2C12_16310300_31%2C12_16310300_31%2C12_16310300_31%2C12_16310300_31%2C17_01350000_ZZ&ccimIds=6323030%2C1614281%2C1614280%2C1614895%2C1616168%2C1616172%2C1616177%2C1616176%2C1616175%2C1616174%2C1616173%2C6696191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